2026.05.20.

2026년 1분기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김동혁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02.368.5533
kimdh @korearatings.com

박가령 평가기준실 통계전문
02.368.5529
shpark@korearatings.com

❖ Summary

본 보고서는 2026년 1분기 장기신용등급(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 변동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2026년초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신용등급(선순위 무보증사채)을 보유한 397개사와 1분기 중 신규 등급을 부여한 6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등급전망(Rating Outlook) 및 등급감시(Rating Watch) 현황도 함께 분석하였다.

2026년 1분기 신용등급 상승 8개사, 하락 0개사 2026년 1분기 신용등급은 상승 8개사, 하락 0개사로 집계되었으며, 부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등급유지 380개사(95.7%), 등급소멸 9개사(2.3%)로 나타났다. 등급변동 업체수 증가에 따라 등급변동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2.06%를 기록하였다. 등급하락 없이 등급상승만 발생함에 따라 등급변동성향과 등급변동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6년 1분기 등급상승은 모두 대기업군에서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군에서는 등급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등급소멸은 대기업군(6개사)과 중소기업군(3개사)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기업형태별(유가증권, 코스닥, 기타)로는 등급상승이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등급하락과 등급소멸은 법인 유형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났다.

2026년 1분기 LRC 0개사, Rising Star 1개사, Fallen Angel 미발생 2026년 1분기 중 신용등급이 2 notch 이상 변동된 LRC 업체는 없었다. 2007년 이후 2025년까지 Rising Star(대상기간 초 투기등급이던 신용등급이 기간 말 투자등급으로 상승한 사례)가 없었으나 2026년 1분기에는 1개사(티피)가 발생하였다. 한편, 과거 꾸준히 발생하던 Fallen Angel(투자등급이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사례)은 2025년에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6년 3월말 기준 긍정적 전망 15개사, 부정적 전망 24개사, 긍정적 검토 대상 0개사, 부정적 검토 대상 2개사 '긍정적(Positive)' 전망이 부여된 업체는 15개사, '부정적(Negative)' 전망은 24개사이며, '유동적(Evolving)' 전망이 부여된 사례는 없다. 비안정적(Non-stable) 등급전망 보유업체는 총 39개사로, 전체 유효등급 보유업체(394개사)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중 신규 등급감시(Rating Watch) 등록 업체는 없었으며, 2026년 연초 기준 등급감시 대상 업체 중 1개사의 등급이 소멸됨에 따라, 3월말 기준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는 2개사만 등록된 상태이다.

2026년 1분기 신용등급 변동현황(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

기간	등급	기업수 (개)	상승 (개, %)	유지 (개, %)	하락 (개, %)	Default (개, %)	소멸 (개, %)	등급상하향배율 (배)	등급변동률 (%)	등급변동성향 (%)
26.01 초 ~ 26.03 말	투자	371	7 (1.9)	357 (96.2)	0 (0.0)	0 (0.0)	7 (1.9)	N.A	1.92	1.92
	투기	26	1 (3.8)	23 (88.5)	0 (0.0)	0 (0.0)	2 (7.7)	N.A	4.17	4.17
	총계	397	8 (2.0)	380 (95.7)	0 (0.0)	0 (0.0)	9 (2.3)	N.A	2.06	2.06

주) 연초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채권이 1분기 중 발행된 경우 연초 신용등급 보유 업체 수에 포함(2023년 부터)

I.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당사가 정기적으로 발간해온 분·반기 및 연간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2026년 1분기 신용등급 변동성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세부 용어 설명은 [첨부 1] 참조).

금번 분석의 대상은 2026년 초 기준 당사의 신용등급(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이 부여된 397개 기업과 1분기 중 신규 등급이 부여된 6개 기업을 포함한 총 403개사이다. 단, “III. 금액 기준 부도 현황”에서는 구조화채권을 제외한 전체 채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이 경우 후순위채권 등도 포함된다.

II. 신용등급 변동현황

2026년 1분기 상승 8개사, 하락 0개사, 부도 0개사

2026년 1분기 전체 분석대상 397개사 중 신용등급 변동 기업은 8개사(2.0%)였으며, 모두 등급상승 사례였다. 하락 및 부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등급유지 380개사(95.7%), 등급소멸 9개사(2.3%)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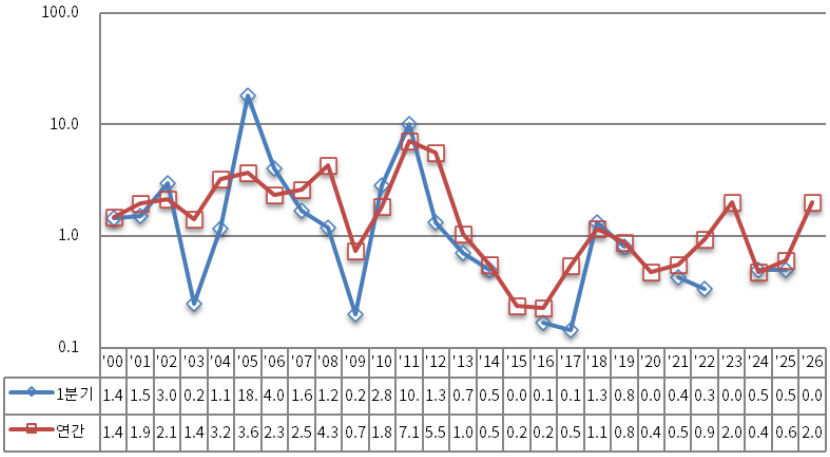
2026년 1분기에는 등급하락 업체가 없어 등급상하향배율은 산출되지 않았으며, 등급변동 업체수 증가로 등급변동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2.06%를 기록하였다. 등급하락 없이 등급상승만 발생함에 따라 등급변동성향과 등급변동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 신용등급 변동현황(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

기간	등급	기업수 (개)	상승 (개,%)	유지 (개,%)	하락 (개,%)	Default (개,%)	소멸 (개,%)	등급상하향 배율(배)	등급변동률 (%)	등급변동 성향(%)
25.01 초 ~ 25.03 말	투자	369	1 (0.3)	361 (97.8)	0 (0.0)	0 (0.0)	7 (1.9)	N.A	0.28	0.28
	투기	47	0 (0.0)	42 (89.4)	2 (4.3)	2 (4.3)	1 (2.1)	0.00	8.70	-4.55
	총계	416	1 (0.2)	403 (96.9)	2 (0.5)	2 (0.5)	8 (1.9)	0.50	1.23	-0.25
26.01 초 ~ 26.03 말	투자	371	7 (1.9)	357 (96.2)	0 (0.0)	0 (0.0)	7 (1.9)	N.A	1.92	1.92
	투기	26	1 (3.8)	23 (88.5)	0 (0.0)	0 (0.0)	2 (7.7)	N.A	4.17	4.17
	총계	397	8 (2.0)	380 (95.7)	0 (0.0)	0 (0.0)	9 (2.3)	N.A	2.06	2.06

주) 연초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채권이 1분기 중 발행된 경우 연초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에 포함(2023년부터)

[그림 1] 연도별 등급상하향배율 추이 (단위: 배)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분기	1.4	1.5	3.0	0.2	1.1	18.	4.0	1.6	1.2	0.2	2.8	10.	1.3	0.7	0.5	0.0	0.1	0.1	1.3	0.8	0.0	0.4	0.3	0.0	0.5	0.5	0.0
연간	1.4	1.9	2.1	1.4	3.2	3.6	2.3	2.5	4.3	0.7	1.8	7.1	5.5	1.0	0.5	0.2	0.2	0.5	1.1	0.8	0.4	0.5	0.9	2.0	0.4	0.6	2.0

주) 1분기: xx년 1월초 ~ xx년 3월말
연간: (xx-1)년 4월초 ~ xx년 3월말

III. 금액 기준 부도현황

2026년 1분기 부도 미발생

금액 기준 부도 현황은 구조화채권을 제외한 전체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후순위채권 등도 포함된다. 부도 금액은 2016년 대규모 회사채 발행잔액을 보유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실화로 급격히 증가(약 1.6조 원)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간헐적 부도가 주를 이루며 전체 부도 금액 규모는 축소되었다.

2026년 1분기 기초 발행잔액은 약 104조 5,879억원이며, 부도 발생 업체 및 부도금액은 없었다. 이에 따라 전체 및 투자·투기등급군 부도율은 모두 0%를 기록하였다.

[표 2] 회사채 부실발생 금액현황

(단위: 십억원, %)

기간	등급	전체			선순위			선순위(금융채 제외)		
		투자	투기	전체	투자	투기	전체	투자	투기	전체
25.01 초	기초발행잔액	974,704	1,442	976,147	897,814	1,442	899,257	163,231	1,442	164,673
~	부도금액	0	25	25	0	25	25	0	25	25
25.03 말	부도율	0.00	1.73	0.00	0.00	1.73	0.00	0.00	1.73	0.02
26.01 초	기초발행잔액	1,044,830	1,048	1,045,879	966,490	1,048	967,538	164,250	1,048	165,298
~	부도금액	0	0	0	0	0	0	0	0	0
26.03 말	부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V. Large Rating Changes

2026년 1분기
상승 LRC: 0
하락 LRC: 0

Large Rating Changes(이하 'LRC')는 일정 기간에 신용등급이 2 notch 이상 변동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LRC 지표는 신용등급의 추세적 안정성 및 예측성과 연관되어 있다. 신용등급은 영업실적 추세, 사업지위와 재무구조, 미래 전망까지 포괄하므로, 단기간에 2 notch 이상 변동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LRC는 이벤트 리스크의 현실화나 사업·재무위험 현실화 등 신용도 측면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2026년 1분기 중 신용등급이 2 notch 이상 변동된 LRC 업체는 없었다.

[표 3] Large Rating Changes

기간	등급	상승 (LRC)	상승 (1notch)	상승 소계	유지	하락 (LRC)	하락 (1notch)	하락 소계	상승LRC 비중(%)	하락LRC 비중(%)	LRC Rate(%)
25.01 초	투자	0	1	1	361	0	0	0	0.0	-	0.0
~	투기	0	0	0	42	2	0	2	-	100.0	4.5
25.03 말	전체	0	1	1	403	2	0	2	0.0	100.0	0.5
26.01 초	투자	0	7	7	357	0	0	0	0.0	-	0.0
~	투기	0	1	1	23	0	0	0	0.0	-	0.0
26.03 말	전체	0	8	8	380	0	0	0	0.0	-	0.0

V. Rising Star/ Fallen Angel

2026년 1분기에는 Rising Star 1개 발생, Fallen Angel 미발생

Rising Star는 대상기간 초 투기등급이던 신용등급이 기간 말 투자등급으로 상승한 경우이며, Fallen Angel은 투자등급이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이다.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을 엄격히 구분하는 신용평가의 속성상, Rising Star와 Fallen Angel의 발생은 일상적인 등급변동과는 다른 이슈로 인식된다.

2007년 이후 2025년까지 Rising Star는 미발생하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1개사(티피)가 발생하였다. 한편, 과거 꾸준히 발생하던 Fallen Angel은 2025년에 이어 2026년 1분기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잠재적 Rising Star로 분류될 수 있는 BB+(Positive) 또는 BB+↑ 등급 보유 기업과, 잠재적 Fallen Angel에 해당하는 BBB-(Negative) 또는 BBB-↓ 등급 보유 기업은 2026년 3월말 기준 존재하지 않는다.

[표 4] Rising Stars/Fallen Angels

기간	기초(개)	기말(개,%)				기초(개)	기말(개,%)			
	투자 등급	투자 등급	Fallen Angel	Default	소멸	투기 등급	투기 등급	Rising Star	Default	소멸
25.01 초 ~25.03 말	369	362 (98.1)	0 (0.0)	0 (0.0)	7 (1.9)	47	44 (93.6)	0 (0.0)	2 (4.3)	1 (2.1)
26.01 초 ~26.03 말	371	364 (98.1)	0 (0.0)	0 (0.0)	7 (1.9)	26	23 (88.5)	1 (3.8)	0 (0.0)	2 (7.7)

VI. 규모/형태/업종별 신용등급 변동 현황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간 신용등급 변동 차별화

규모별 등급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간 신용등급 기조에는 차별화된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등급 상승은 주로 대기업군에 집중된 반면, 등급 하락과 소멸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에서 모두 발생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6년 1분기 등급상승은 모두 대기업군에서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군에서는 등급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등급소멸은 대기업군(6개사)과 중소기업군(3개사)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한편, 중소기업군은 분석대상 모수가 작아 소수 기업의 등급 변동이 전체 등급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 규모별 신용등급 변동

기간	규모	기업수 (개)	상승 (개,%)	유지 (개,%)	하락 (개,%)	Default (개,%)	소멸 (개,%)	등급 상하향 배율(배)	등급 변동률 (%)	등급변동 성향(%)
25.01 초 ~ 25.03 말	대	379	1 (0.3)	368 (97.1)	1 (0.3)	1 (0.3)	8 (2.1)	1.0	0.8	0.0
	중소	37	0 (0.0)	35 (94.6)	1 (2.7)	1 (2.7)	0 (0.0)	0.0	5.4	-2.8
26.01 초 ~ 26.03 말	대	370	8 (2.2)	356 (96.2)	0 (0.0)	0 (0.0)	6 (1.6)	N.A	2.2	2.2
	중소	27	0 (0.0)	24 (88.9)	0 (0.0)	0 (0.0)	3 (11.1)	N.A	0.0	0.0

유가증권시장 소속 업체 위주 등급 상승

기업형태별(유가증권, 코스닥, 기타)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신용등급 변동은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등급상승이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등급하락과 등급소멸은 법인 유형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나타났다.

2026년 1분기에는 등급상승 8건 중 7건이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등급소멸은 유가증권 3개사, 코스닥 2개사, 기타 4개사로 나타나, 법인 유형 전반에 걸쳐 발생하였다.

[표 6] 형태별 신용등급 변동

기간	형태	기업수 (개)	상승 (개,%)	유지 (개,%)	하락 (개,%)	Default (개,%)	소멸 (개,%)	등급 상하향 배율(배)	등급 변동률 (%)	등급변동 성향(%)
25.01 초 ~ 25.03 말	유가증권	189	1 (0.5)	182 (96.3)	1 (0.5)	0 (0.0)	5 (2.6)	1.0	1.1	0.0
	코스닥	27	0 (0.0)	26 (96.3)	1 (3.7)	0 (0.0)	0 (0.0)	0.0	3.7	-3.7
	기타	200	0 (0.0)	195 (97.5)	0 (0.0)	2 (1.0)	3 (1.5)	N.A	1.0	0.0
26.01 초 ~ 26.03 말	유가증권	186	7 (3.8)	176 (94.6)	0 (0.0)	0 (0.0)	3 (1.6)	N.A	3.8	3.8
	코스닥	22	0 (0.0)	20 (90.9)	0 (0.0)	0 (0.0)	2 (9.1)	N.A	0.0	0.0
	기타	189	1 (0.5)	184 (97.4)	0 (0.0)	0 (0.0)	4 (2.1)	N.A	0.5	0.5

[표 7] 등급 변동 업체 List(2026.01.01~2026.03.31)

변동	기업체명	2026.01.01		2026.03.31		형태	규모	계열	산업
		등급	Rating Outlook/ Watch	등급	Rating Outlook/ Watch				
상승	(주)LG유플러스	AA	긍정적	AA+	안정적	유가증권	대	엘지	통신서비스
	MG캐피탈(주)	A-	긍정적	A	안정적	기타	대	MG새마을금고	할부리스
	에스케이하이닉스(주)	AA	긍정적	AA+	안정적	유가증권	대	에스케이	반도체
	에이치디현대(주)	A+	긍정적	AA-	안정적	유가증권	대	HD현대	지주회사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	A+	긍정적	AA-	안정적	유가증권	대	HD현대	전력기기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A+	긍정적	AA-	안정적	유가증권	대	HD현대	조선
	키움증권(주)	AA-	긍정적	AA	안정적	유가증권	대	다우키움	증권
	티피(주)	BB+	긍정적	BBB-	안정적	유가증권	대	-	의류
하락	-								
부도									

VII. 신용등급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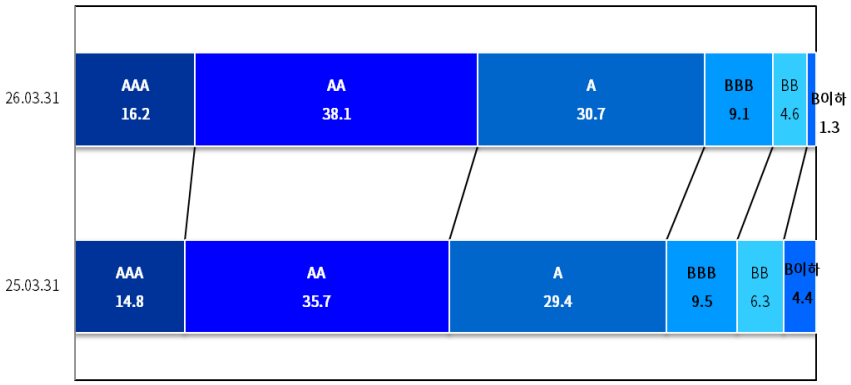
AA와 A급 비중 높은 수준

2026년 3월말 기준, 당사 신용등급(선순위 무보증사채 기준, D등급 제외) 보유 업체는 총 394개사이다. 등급구간별로 보면, 투자등급 비중은 94.1%, 투기등급 비중은 5.9%로, 전반적으로 우량등급 중심의 분포가 유지되고 있다.

이 중 A급 이상(AAA~A)의 비중은 총 85.0%로 집계되며, AA등급이 3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A등급은 30.7%, AAA등급은 16.2%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10%대 중반에 불과했던 AA급 비중은, 이후 우량 기업의 등급상향, 공기업의 발행 증가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BBB급 이하(투기등급 포함) 기업의 비중은 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 기조와 위험회피 성향이 지속됨에 따라, 저등급 기업군의 시장 접근이 여전히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림 2] 신용등급 분포(2025년 3월말, 2026년 3월말) (단위: %)



VIII. Rating Outlook과 Rating Watch 현황

2026년 1분기 Rating Outlook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초 '긍정적(Positive)' 전망이 부여된 22개사 중 8개사는 등급이 상향되었으며, 14개사는 등급이 유지되었다.

'부정적(Negative)' 전망이 부여된 26개사 중에서는 24개사의 등급이 유지되었고, 2개사는 등급이 소멸되었다. 한편, 등급이 하락한 사례는 없었다.

[표 8] 2026년 연초 Rating Outlook의 등급 반영 현황

구분		연초Rating Outlook				
		안정적	긍정적	부정적	유동적	없음
합계		346	22	26	0	3
2026년 1분기 중 등급 반영	상승	0	8	0	0	0
	유지	340	14	24	0	2
	하락	0	0	0	0	0
	부도	0	0	0	0	0
	소멸	6	0	2	0	1

주) 2026년 초 등급전망이 '없음'으로 분류된 3개사는 모두 등급감시(Rating Watch) 대상에 등록된 업체

2026년 3월말 부정적 전망 24개사, 긍정적 전망 15개사

2026년 3월말 기준, '긍정적(Positive)' 전망이 부여된 업체는 15개사, '부정적(Negative)' 전망은 24개사이며, '유동적(Evolving)' 전망이 부여된 사례는 없다. 비안정적(Non-stable) 등급전망 보유업체는 총 39개사로, 전체 유효등급 보유업체(394개사) 대비 9.9%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6년 연초의 48개사(12.1%)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표 9] Rating Outlook 현황

구분	안정적	긍정적	부정적	유동적	없음	합계
2026년 연초	346	22	26	0	3	397
2026년 3월말	353	15	24	0	2	394

주) '없음'은 등급감시(Rating Watch) 대상에 등록되었거나, C 등급을 의미

[표 10] 2026년 3월말 기준 '긍정적(Positive)' 전망 부여 업체

업체	등급	계열	업종	업체	등급	계열	업종
두산에너빌리티(주)	BBB+	두산	전력기기	통영에코파워(주)	A+	에이치디씨	민자발전
(주)디에이치오토리드	B+	-	자동차부품	(주)파라다이스	A	-	호텔, 카지노
삼양식품(주)	A+	-	음식료	(주)풍산	A+	-	비철금속,방산
씨제이씨지브이(주)	A-	씨제이	영화관	(주)한진	BBB+	한진	물류
엘에스일렉트릭(주)	AA-	엘에스	전력기기	현대로템(주)	A+	현대자동차	철도, 방산
(주)케이카캐피탈	BBB	-	할부리스	현대코퍼레이션(주)	A		종합상사
키움에프앤아이(주)	A-	다우키움	NPL투자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	A-		지주회사
키움캐피탈(주)	A-	다우키움	할부리스				

[표 11] 2026년 3월말 기준 '부정적(Negative)' 전망 부여 업체

업체	등급	계열	업종	업체	등급	계열	업종
깨끗한나라(주)	BBB		제지	에이치디현대케미칼(주)	A	HD현대	석유화학
(주)대동	BBB+		농기계	(주)엔켐	BB+		이차전지
(주)대우건설	A	중흥건설	건설	(주)엘지화학	AA+	엘지	석유화학
동아에스티(주)	A+		제약	여천NCC(주)	A-		석유화학
(주)디와이디	B-		화장품	제이티비씨(주)	BBB	중앙	유선방송
(주)비에스한양	BBB+	BS	건설	(주)포스코이앤씨	A+	포스코	건설
신한자산신탁(주)	A-	신한금융	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주)	A	엠디엠	부동산신탁
아주스틸(주)	BB+	동국제강	철강	한화솔루션(주)	AA-	한화	케미칼, 신재생
에스엘엘중앙(주)	BBB	중앙	방송컨텐츠	한화토탈에너지스(주)	AA-	한화	석유화학
에스케이쉴더스(주)	A		보안서비스	현대엘리베이터(주)	A+		엘리베이터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	A	에스케이	이차전지	(주)호텔신라	AA-	삼성	호텔, 면세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AA-	에스케이	석유화학	(주)제주대동	BBB+		부동산개발

주) 제주대동의 신용등급은 대동의 연대보증을 감안한 등급

등급감시 신규 등록 0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등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등급감시(Rating Watch) 대상으로 등록한다. 2026년 연초 기준으로 에스케이디앤디, 에스케이실트론, 에스케이이터닉스가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 중 에스케이이터닉스는 만기 도래에 따라 등급이 소멸되었으며, 나머지 업체는 등급이 유지되었다. 한편, 2026년 1분기 중 신규 등급감시 등록업체는 없었다.

[표 12] Rating Watch List 등록 현황

연도	긍정적 검토	점진적 관찰	부정적 검토	합계
2026년 연초	0	0	3	3
2026.1~3	0	0	0	0
등급감시 신규등록업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 13] 2026년 Rating Watch 업체의 등급 반영 현황

구분		긍정적 검토	점진적 관찰	부정적 검토
2026년 1분기까지 등급 반영	상승	0	0	0
	유지	0	0	2
	하락	0	0	0
	부도	0	0	0
	소멸	0	0	1
합계		0	0	3
2026년 3월말		0	0	2

[표 14] 2026년 3월말 기준 '긍정적검토대상' 및 '부정적검토대상' 등록 업체

긍정적검토대상 등록 업체				부정적검토대상 등록 업체			
업체	등급	계열	업종	업체	등급	계열	업종
				에스케이디앤디(주)	BBB↓	에스케이	부동산개발
				에스케이실트론(주)	A+↓	에스케이	전자

IX. 향후 전망

2026년 1분기 중 연초 등급전망이 '긍정적(Positive)'인 업체 22개사 중 8개사의 등급이 상향된 반면, '부정적(Negative)' 전망 업체 26개사에 대한 등급하향 조정은 없었다. 등급 방향성별 조정 속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2026년 1분기 신용등급은 등급상향우위 기조를 보였으며, 등급전망에 기반한 신용도 방향성의 예측 가능성은 저하되었다.

2026년 3월말 기준 '부정적(Negative)' 전망 부여 업체수는 24개로, '긍정적(Positive)' 전망 업체수 15개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등급 방향성별 조정 속도 차이를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등급상향우위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조달환경 저하 가능성은 일부 산업의 경영환경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건설, 이차전지 업종은 수요 둔화와 수익성 저하, 투자부담 지속 등 비우호적 사업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반도체·조선·방산 등 일부 수출 및 전쟁 수혜 업종은 글로벌 수요 확대와 우호적인 수주환경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환경 요인을 고려할 때, 산업별 신용도 방향성의 차별화는 확대될 전망이다.

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첨부 1] 신용등급 변동 및 부도율 관련 용어 및 방법론(Glossary & Methodology)

부도(default)

부도는 당사의 D등급 정의에 따라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당사의 분석적 판단에 근거하여 실질적 의미에서 미래상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D등급을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금융투자업규정 제 8-19조의 9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도 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

소멸(Withdrawal Rating)

분석대상 기간 초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으나, 기간 말에 상환 또는 피흡수 합병 등의 사유로 등급이 소멸한 경우를 의미한다.

Large Rating Changes (LRC)

일반적으로 분석대상 기간 초 신용등급에 비해 일정 notch 이상 신용등급이 변동한 경우로, 당사에서는 2notch 이상으로 등급이 변동한 경우 LRC로 집계한다.

Rising Star/ Fallen Angel

Rising Star는 분석대상 기간 초 투기등급이던 신용등급이 기간 말 현재 투자등급으로 전환된 경우를 일컬으며, Fallen Angel은 반대로 분석대상 기간 초 투자등급이던 신용등급이 기간 말 투기등급으로 전환된 경우를 일컫는다.

등급상하향배율(Up / Down ratio)

분석대상 기간 중 등급 하향 건수에 대한 등급상향비율로 이 값이 1보다 크면 상향 성향, 1 보다 작으면 하향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text{등급 상하향 배율} = \frac{\text{등급 상승업체수}}{\text{등급 하향업체수}}$$

등급변동률(Rating Activity Rates)

분석대상 기간 중 변동 업체 수와 유지 업체 수 대비 변동 업체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등급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에 가까울수록 등급변동이 많았음을 암시한다.

$$\text{등급변동률} = \frac{\text{상승업체수} + \text{하락업체수}}{\text{상승업체수} + \text{하락업체수} + \text{유지업체수}}$$

단, 하락 업체 수에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부도 발생한 업체를 포함함.

등급변동 성향(Rating Drift Rates)

등급 상향 업체 수에서 하락 업체 수를 뺀 값을 유효등급 보유 업체 수로 나눈 값으로서, 상향비율이 높은 경우 양(+)의 값을, 하향비율이 높을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내며, 등급 상향 업체 수가 많을수록 1에 가깝고, 하향 업체 수가 많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text{등급변동성향} = \frac{\text{상승업체수} - \text{하락업체수}}{\text{상승업체수} + \text{하락업체수} + \text{유지업체수}}$$

상승(하락) LRC 비중(% LRC)

상승(하락) LRC 업체 수를 전체 상승(하락) 업체 수로 나눈 값으로서 상승(하락) LRC 업체가 상승(하락) 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1에 가깝고, 낮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text{상승(하락)}LRC\text{비중} = \frac{\text{상승(하락)}LRC}{\text{상승(하락)업체수}}$$

LRC RATEs

상승LRC 업체와 하락LRC를 합한 전체 LRC 업체 수를 유효등급 보유 업체 수(Default 제외)로 나눈 값으로서 LRC 업체 수가 많을수록 1에 가깝고, 적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LRCRate = \frac{\text{상승}LRC + \text{하락}LRC}{\text{상승업체수} + \text{하락업체수} + \text{유지업체수}}$$

연간부도율(Annual Default Rates)

해당 연초에 특정 신용등급을 보유하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 중 해당 연말까지 부도가 발생한 업체 수를 해당 연초에 특정 신용등급을 보유하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 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단,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 등 발생 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도업체 수 및 연초 신용등급 보유 채권을 발행한 업체 수에 포함된다.

[첨부 2] 최근 신용등급 변동

기간	등급	기업수 (개)	상승 (개,%)	유지 (개,%)	하락 (개,%)	Default (개,%)	소멸 (개,%)	등급상하향배율 (배)	등급변동률 (%)	등급변동성향 (%)
2021년	투자	356	16 (4.5)	311 (87.4)	9 (2.5)	0 (0.0)	20 (5.6)	1.78	7.44	2.08
	투기	57	1 (1.8)	36 (63.2)	10 (17.5)	1 (1.8)	9 (15.8)	0.10	25.00	-19.15
	전체	413	17 (4.1)	347 (84.0)	19 (4.6)	1 (0.2)	29 (7.0)	0.89	9.64	-0.52
2022년	투자	381	20 (5.2)	331 (86.9)	10 (2.6)	0 (0.0)	20 (5.2)	2.00	8.31	2.77
	투기	54	0 (0.0)	40 (74.1)	5 (9.3)	0 (0.0)	9 (16.7)	0.00	11.11	-11.11
	전체	435	20 (4.6)	371 (85.3)	15 (3.4)	0 (0.0)	29 (6.7)	1.33	8.62	1.23
2023년	투자	380	13 (3.4)	322 (84.7)	18 (4.7)	0 (0.0)	27 (7.1)	0.72	8.78	-1.42
	투기	57	0 (0.0)	33 (57.9)	7 (12.3)	1 (1.8)	16 (28.1)	0.00	19.51	-17.50
	전체	437	13 (3.0)	355 (81.2)	25 (5.7)	1 (0.2)	43 (9.8)	0.52	9.90	-3.05
2024년	투자	373	10 (2.7)	319 (85.5)	13 (3.5)	0 (0.0)	31 (8.3)	0.77	6.73	-0.88
	투기	55	0 (0.0)	37 (67.3)	6 (10.9)	2 (3.6)	10 (18.2)	0.00	17.78	-13.95
	전체	428	10 (2.3)	356 (83.2)	19 (4.4)	2 (0.5)	41 (9.6)	0.53	8.01	-2.34
2025년	투자	369	15 (4.1)	320 (86.7)	9 (2.4)	0 (0.0)	25 (6.8)	1.67	6.98	1.74
	투기	47	2 (4.3)	20 (42.6)	3 (6.4)	4 (8.5)	18 (38.3)	0.67	31.03	-4.00
	전체	416	17 (4.1)	340 (81.7)	12 (2.9)	4 (1.0)	43 (10.3)	1.42	8.85	1.36
2025년 1Q	투자	369	1 (0.3)	361 (97.8)	0 (0.0)	0 (0.0)	7 (1.9)	-	0.28	0.28
	투기	47	0 (0.0)	42 (89.4)	2 (4.3)	2 (4.3)	1 (2.1)	0.00	8.70	-4.55
	전체	416	1 (0.2)	403 (96.9)	2 (0.5)	2 (0.5)	8 (1.9)	0.50	1.23	-0.25
2026년 1Q	투자	371	7 (1.9)	357 (96.2)	0 (0.0)	0 (0.0)	7 (1.9)	-	1.92	1.92
	투기	26	1 (3.8)	23 (88.5)	0 (0.0)	0 (0.0)	2 (7.7)	-	4.17	4.17
	전체	397	8 (2.0)	380 (95.7)	0 (0.0)	0 (0.0)	9 (2.3)	-	2.06	2.06

주) 2023년부터 연초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채권이 1분기 중 발행된 경우 연초 신용등급 보유 업체 수에 포함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

KRIR 2026-026, 2026-05-20